

目錄作成을 위한 圖書館相互協助

具 滋 榮*

<目 次>

- | | |
|-------------------|----------------------------|
| I. 序 文 | IV. 目錄作成을 위한 地域單位別
相互協助 |
| II. 目錄作成을 위한 相互協助 | |
| III. 中央集中目錄과 協同目錄 | |

I. 서 문

오늘 날 圖書館資料의 범위는 재래식 인쇄물로 부터 여러 시청각資料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이 이행하는 使命과 관련되는 모든 資料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物的資源은 훈련된 專門司書의 효율적 奉仕와 더불어 도서관의 使命을 최대로 이행시켜주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즉, 이상적인 단계에서 중·고등학교도서관은 학습과 관련되는 모든 活動이 전개되는 학습센터로, 대학도서관은 학습과 연구활동의 핵심부로, 공공도서관은 成人敎育과 地域社會의 要求를 應答할 수 있는 資料센터로서의 역할담당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先進國의 書架와 書庫는 날로 심해가는 出版物의 홍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나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 중요한 所因으로는 2次대전 이후로 심각해진 정보폭발(information explosion)을 들 수 있다. 技術의 발달로 인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된 大量生産방법을 통해 情報量이 급증할 뿐 아니라 情報의 전달수단인 매개체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전망으로 더욱 강화된 情報의 비대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미 축적된 情報量만 하더라도 재래식 資料整理방법으로는 완전한 活用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동화로 향한 기계적방법이 고안 채택되고 있으며 전자기를

*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이용하는 다채로운 정보검색 방안이 계속 시험되고 있다.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기존知識 혹은 기존情報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情報내지 知識을 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견해의 진리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기존 知識의 최대활용은 모든 도서관 업무의 궁극적 目的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래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方案은 재래의 것과 합세하여 도서관의 知識社會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전문업무를 크게 분류하여 도서관資料의 수서와 정리에 목적을 둔 기술업무(technical services)와 독자에의 奉仕를 둘러싼 참고업무(reference services)를 들 수 있다. 기술업무는 一名 資料整理 혹은 기술적 처리(technical process)라고도 알려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資料의 선정과 수서에서 시작하여 分類, 目錄, 主題名표기를 거쳐서 카아드목록의 관리와 자료의 폐기(wedding) 작업에 까지 이르고 있다. 기술업무中 목록작성(cataloging)에 있어 사용되는 기술적 방법은 여러 도서관들 사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즉, 수많은 도서관들이 같은 資料의 目錄을 위해 유사한 過程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19세기 중엽이래로 지각있는 사서들 사이에서는 目錄에 관한 상호협동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論考는 도서관資料의 目錄業務를 둘러싸고 시도되었던 몇개의 중요한 상호협동의 사례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 견해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서관마다 매일 겪는 지루한 目錄業務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司書들이 채택한 방안을 연구해보며, 目錄作成을 위한 相互協同의 양상으로 나타난 협동목록작성(cooperative cataloging)과 중앙집중 목록작성(centralized cataloging)의 발달과 특성을 論하고, 이들이 세가지 水準—지역수준(regional level), 국가 수준(national level) 그리고 국제 수준(international level)—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며 그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實例에 비추어 검토하므로써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투시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II.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

도서관資料의 目錄作成을 위한 상호협동의 근본은 목록규칙의 표준화에 기인하고 있다. 西洋의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전제는 이미 실현된지 오래이며 이차적 단계에서 통일된 目錄規則의 활용에서 오는 문제해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사실상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國內의 도서관들 사이에 목록법에 관한 일치성이 결여되고 있다. 1961年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과로 다소 국제적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여러 국가목록법(national cataloging codes)사이에는 상당한 相異性이 存在하고 있다.¹⁾ 대체로 말하여 目錄法の 표준화는 국가적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目錄法은 16세기의 베네딕턴 도사였던 Florian Trefler에 의해 始作되었다고 하나 그 역사는 자료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도서관의 그것과 거의 일치할 것임이 당연하다. 그러나 동일한 목록법이 단일 통치지역에 일제히 적용된 최초의 예는 1791년에 불란서 혁명정부가 압수된 수 많은 藏書의 目錄을 위해서 목록규정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英國의 Antony Panizzi의 “91 rules”와 美國의 Charles Jewett와 Charles Cutter의 목록규칙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20세기初에 발표된 ALA Rules-Advance Edition (1901)과 Anglo-American Rules(1908)를 英美의 다수의 도서관이 채택함으로써 목록규칙 통일화에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즉,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터전이 마련되기 오래전인 1851년에 Charles Jewett는 그의 오랜 사서생활을 거울삼아 목록작성을 위한 도서관들 사이의 상호협동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가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Smithsonian Institution을 근거지로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을 발전시켜서 美國內의 많은 도서관들이 다 갈

1) A. H. Chaplin, “Cataloging principles: five years after the Paris Conferen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XXI, No. 3 (1967) pp. 140-149 (IFIA Committee on Uniform Cataloging Rules에서 입수한 보고에 의거하여 1961年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 이후의 여러국가들의 목록법개정에 관한 조사를 기록했다)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어떤 일원화된 조직을 구상하였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여의치 않은 조건들(통일화된 목록규칙이 없었던 것은 중요한 이유였음)으로 인해서 Jewett의 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상조적인 제안으로 그쳤었다. 그러나 1876年 ALA의 창립총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Cooperative Cataloging”(협동목록)에 관한 토의안에서 Jewett의 꿈은 다시 서광을 찾게 되었다. 더욱이 같은해 출판된 미국교육국(U.S. Bureau of Education) 조사서내에 Otis Robinson이 미국대학교도서관을 위해서 중앙집중식목록을 건의한 점과, 영국인 F.M.Muller가 British Museum에서는 영어책을 그리고 Bibliotheque Nationale에서는 불어책을 각각 범국가적 중앙집중식을 통해서 목록 작성할 것을 제의한 것은 Jewett의 선견지명을 확증시켜주고 있다²⁾

19세기 후반동안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은 중요한 토의제목으로 계속 되풀이 된 것으로 앞에 기술한 사실 이외에도 Melvil Dewey, Justin Winsor, C.A.Nelson과 같은 유능한 사서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로 實現된 예는 소수이며 그중 성공한 것은 거의 드물었다. 아직 그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았었고 기술적인 배려—이 경우에는 표준화 된 목록규칙—이 미비상태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初에 들어오면서 확대되는 도서관장서의 과중한 目錄作成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목록업무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졌고 카아드목록의 使用과 카아드크기에 관해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더하여 Anglo-American Rules와 같은 표준화된 目錄規則의 出現으로 상호협동의 무드가 조성되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美國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1901년에 시작한 인쇄카아드(Printed card) 판매의 성공은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쇄카아드판매는 의회도서관이 시도한 협동목록작성의 산물이며 目錄業務의 간소화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협동의 표본을 이루고 있다. Charles Jewett가 제창한 중앙집중식목록작성계획이 사멸된 後 1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은 중앙집중식목록작성, 협동식목록작성,

2) John Dawson, “A History of Centralized Cataloging”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XI, No. 1 (1967) p. 28.

그리고 최근에 시도된 분담식 목록작성(Shared cataloging)등의 양상으로 나타나 여러 지역단위別로 실현되어지고 있다.

Ⅲ. 중앙집중목록과 협동목록

여기에서 잠시 중앙집중과 협동목록작성의 用語解説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1943)에 의하면 중앙집중 목록작성이란 하나의 큰 체제안에 속해있는 여러 도서관을 위해서 중앙에서 목록작성을 하여 배부하는 것이며, 협동 목록작성은 정해진 중심부는 없으나 목록작성상 불가피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서관들 사이에 目録情報(cataloging information) 교환을 통해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前者는 종합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서 그 大學에 속하는 여러 科도서관(departmental libraries)과 단과대학도서관(college libraries) 資料의 目録作成을 전달하여 목록카드를 배부하는 경우, 한 지역內의 公共, 學校, 혹은 特殊도서관들이 공동목록작성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맡아 보게하는 경우, 나아가서는 한 나라 안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의 업무를 한 중심부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들어 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좋은 例로는 미국의회도서관과 H.W. Wilson회사의 印刷카드판매가 있다. 협동목록작성은 도서관들 사이에 목록카드를 교환한다든지 혹은 여러 도서관들이 각기의 목록카드를 한 곳에 보내어 종합목록을 인쇄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서 목록정보의 보다 넓은 범위의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미국의회가 1901년에 시작한 종합목록(Union Catalog)은 협동목록의 대표적 例이며 Yale대학과 Columbia대학 의학도서관들 사이에 의학자료의 목록카드교환은 보다 단순한 소규모의 좋은 例가 된다.

두 用語의 理解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앙집중 목록작성을 옹호한 Osborn은 이 방법이 가지는 몇가지 利點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값비싼 목록작성상 필요한 참고자료를 한지점에 집중시킴으로서 나머지 도서관에서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유능한 목록사서를 집중시킴으로 목록사서의 절대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시켜주며, 셋째로 표준화, 통일화된 목록규칙의 효율적 활용과, 넷째로 통신의 단축에서 오는 행정상의 효율을 피할 수 있으며, 다섯째로 불필요한 목록

규칙의 개정과 재판을 막을 수 있고 여섯째로는 분류와 표목의 배정을 위하여 일률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음을 들었다.³⁾ 여기에 더하여 중앙집중식은 종합목록을 더욱 용이하게 하므로 상호대차의 보다 큰 효율성을 조장해 주기 때문에 용도가 낮은 값비싼 資料의 중복구입을 막아주는 간접적 요인이며 또 중앙집중식이 고도로 세련된 단계에서는 국가서지의 출판이 자동적 부산물로 용이하게 생산될 수 있다. 이같은 利點이 있는 반면 중앙집중목록 작성은 기본목록작성(basic or standard cataloging)에서 그치게 되므로 개개 도서관의 특이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즉, 標目 主題名 書誌 註記사항 등의 카아드내용에 있어 도서관에 따라 요구하는 상세성이 다르므로 중앙에서 구입한 인쇄카아드에 부가기입을 하기 위하여 도서관별로 어느 정도의 목록업무는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가장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라는 미국의회 도서관의 인쇄카아드도 미국도서관의 필요를 절반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것 역시 시간적인 지체가 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내용상의 한계성과 수서를 못따라가는 인쇄카아드의 부족 및 지체로 인하여 중앙집중식 목록작성의 체제안에서도 도서관마다 자체의 분류·목록정책과 참고자료 및 도구와 사서를 구비해야 하므로 결국 이중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집중 목록작성은 이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각도서관마다 되풀이 하는 목록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므로 보다 많은시간과 자원을 독자봉사에 전환시키는 공헌을 가능케 함은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

협동목록작성에서는 중앙집중식과는 달리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목록되어 지므로 中央으로 책을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동도중에 분실될 가능성이 라든지 이동을 위한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감소시켜 줄 뿐 아니라 散在해 있는 전문학자들의 전문지식과 언어능력의 혜택을 통해서 보다 세련된 목록작성이 가능하다. 또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 자료의 산출근원에서 목록되어 지므로서 더욱 신속하고 완전한 目錄作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학위논문은 그것이 수여되는 大學에서, 지방정부간행물은 그 지방에서, 특수한 언어로 된

3) Maurice Tauber, *Technical services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5) p. 124.

자료와 불구자 教育을 위한 特殊資料 등은 産出근원지에서 목록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에 목록작성상 어느 정도의 반복과 일치성의 결여가 없지 않으며 現實的 문제로서 유능한 사서들의 부족은 많은 도서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두 방식의 특성에 관하여 한가지 더 첨부할 것은 구성원의 관계로 보아 중앙집중식에서는 참가회원들이 어떤 권위있는 중심부를 향하여 의존하고 있는 반면, 협동식에서는 서로의 협동교환을 통하여 회원들 사이에 대등한 위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중앙집중과 협동목록작성은 각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상호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兩者가 그 目的 설정에 있어 目錄作成의 반복을 피하려는 원칙에 일치하고 있으며 채택된 수단방법에 따라 서로가 다른 이름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많은 목록작성사업이 이 두가지 양상을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에서 협동식 목록을 통하여 종합목록을 만들고 이것을 근거로 목록카드를 인쇄하여 판매하므로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한 좋은 예이다. 즉 의회도서관은 두가지 방식을 병행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병행발전이 가능한 동시에 어느 하나도 각각 독립하여 그 특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Ⅳ. 목록작성을 위한 지역단위별 상호협동

1. 지역수준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이 국가보다 작은 영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방적 수준의 범위로 간주한다. 도서관 장서의 확장과 다수의 새로운 도서관건립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기술봉사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혹은 지역자료정리센터(regional processing center)라고 불리우는 조직은 국가보다 작은 지역안에서 중앙집중 목록작성업무가 이행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센터는 두개 이상의 도서관을 위해서 자료의 주문과 수서에서 부터 분류와 목록작성과 목록카드 생산을 거쳐 冊에 청구번호와 소유권기입, 책 포켓(book pocket)의 첨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술적 업무 뿐 아니라 준비된 冊(도서관자료)과 목록카드세트(card set)를 도서관에 배달하는 임

무를 담당한다.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술업무의 범위는 신축성있게 조절되고 있다.

센터는 같은 종류의 도서관—학교, 공공, 대학,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곳과 서로 다른 종류의 도서관을 구별없이 혼합하여 봉사하는 곳도 있다. 재정조달방법은 다양하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회원들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센터의 조직형태중 몇개의 實例를 들어 보면 캘리포니아州와 같이 주립도서관이 州안의 여러 도서관과 계약을 맺고 이런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Southwest Missouri Library Service와 같은 비영리사업체가 그 지역도서관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으며, Central Florida Processing Center와 같은 기존도서관의 일부가 다른 도서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센터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⁴⁾

이런 지방센터는 참가도서관들로 하여금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이 가지는 利點의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수준의 대규모 중앙집중식에서는 불가능한 지역적요구에 보다 충실히 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사서들의 긴밀한 접촉의 기회를 마련해주므로 보다 용이한 여러 가지 상호협동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이런 센터의 存在價値에는 의심할 바 없으나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에 관해서는 再考를 필요로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앙집중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두 수준의 병립에 관한 贊反의 理論的 근거의 전개를 필요로 하므로 이 論考의 범위밖에 있다. 단지 이문제와 관련하여 1930年代와 1940年代에 국가종합목록과 지방종합목록을 둘러싸고 거듭되었던 많은 토론의 결론과 현상태를 참작하여 평가의 지침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 국가 수준

한 국가내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협동을 이 범위 안에서 취급하고자 한다. 목록작성을 위한 국가적수준에서의 상호협동이라 하면 美

4) "Guidelines for Centralized technical servic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X, No. 3 (1966) p. 234. (이 논문은 technical service center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國의회도서관을 연상할 수 있으리만큼 이 도서관의 개척자적 지도자적 역할과 공헌은 크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1901년부터 의회도서관은 협동식목록작성을 통하여 종합목록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종합목록의 카아드 뿐만 아니라 의회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새로운 資料의 목록카아드를 印刷하여 판매함으로써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의 근거지를 이루었다. 의회도서관은 협동식과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을 병행 발전시킨 것 이외에 1934년에는 L.C. Cooperativ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Section을 창설하여 대학도서관의 日録情報에 관한 요구에 대응하였으며, 1944년에는 *Cooperative Cataloging Manual for the Use of Contributing Libraries*를 출판하여 협동 목록을 위하여 더욱 강화된 기반을 마련하였고, *L.C. Catalog of Printed Cards* (1942—1946, 167卷)와 *National Union Catalog* (1958)를 산출하여 日録情報의 조달을 보다 넓은 지역에 용이하게 하였다.⁵⁾ 중앙집중 목록작성의 대표적 산물인 인쇄카아드 판매량은 계속 증가 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1958년 이래로는 의회도서관所藏의 한국어, 일어, 중국어자료를 위한 印刷카아드도 산출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로 의회도서관은 도서관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며 강화된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개의 새로운 시책을 실현해왔다. 1947년에 *Publishers Weekly*와의 계약을 통해서 *P.W*안에 새출판물의 의회도서관 카아드번호(L.C. card number)를 첨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결과로 도서관에서는 冊을 주문하는 동시에 인쇄카아드를 주문할 수 있게 되므로 冊과 함께 혹은 冊보다 먼저 목록카아드를 입수하게 되므로 목록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 1953년에는 'All-the-Books Plan'을 시도하였는데 내용은 출판업자로 하여금 견본판(advance copy)을 의회도서관에 보내게 하여 冊이 시판되기전에 日録되어져 그 목록카아드의 번호를 冊안에 印刷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인쇄카아드와 부가적 책주문이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의회도서관, 출판사, 도서관이 다함께 혜택을 입을 수있게 되었다. 1958년에 'cataloging-in-source project'를 실험적으

5) John Dawson, "The Library of Congress: its role in Cooperative and Centralized Cataloging" *Library Trends*, Vol. XVI(July 1967), pp. 85--96.

로 시작하였으나 1년만에 중단되었다. 이것은 19세기末 이래로 사서들의 흥미를 끌어오던 문제로 의회도서관의 참여는 도서관계의 이목을 모았으나 불행하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Cataloging-in-source project'의 내용은 출판사에서 입수한 견본판으로 목록을 하여 목록카드의 전체내용을 冊속에 인쇄하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인쇄카드번호만을 冊속에 실어주는 것보다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의회도서관은 1961년에 'Cards-with-Books Program'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冊속에 목록카드를 인쇄하려던 'Cataloging-in-source project'와는 달리 출판사로 하여금 주문된 冊의 배달과 동시에 목록카드세트(set)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5,500여 개의 미국과 외국 출판사들이 그들의 견본판을 의회도서관에 보내고 있다. 1970년에 CIP (Cataloging in Publication)⁶⁾를 창안하여 實現을 추진중인 데 그 내용은 출판사들이 보내온 견본판에 의하여 중요한 目錄정보를 冊안에 인쇄하는 것이다. 인쇄될 정보는 의회도서관이 결정하는 주표목, 부표목, 주제명표목, 서지사항, 의회도서관 청구번호, Dewey분류번호, 의회도서관 카드번호, 국제표준서적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Cataloging-in-source와 유사한 것으로 그 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司書와 出版業者 兩則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실천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급속히 발달되고 있는 情報 보급의 기계화에 발맞추어 의회도서관은 1965年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 Record)project를 시도하여 성공적 결과를 얻고 있다. 즉, 목록카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目錄情報(cataloging information)가 카드대신 전자테이프에 실려서 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도서관에 보내어져 입수한 도서관의 컴퓨터에 저장되며 필요에 따라 목록카드세트, book catalog(카드아닌 冊형태로되어 인쇄된 목록), 주제별서지(subject bibliographies)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의회도서관이 주관하는 중앙집중목록작성의 전례없는 신속성의 효과와 부수적 이득을 가져왔다. 또 같은 해 발족된 Shared Cataloging Program은 국내에서는 더욱

6) William Welsh, "The Processing department of the Library of Congress in 1970"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XV, No. 2 (1971) pp.198-200.

완벽한 중앙집중목록 작성을 가능케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협동을 통해서 분담 목록작성을 꾀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의회도서관은 이제 목록업무의 상호협동을 국제적수준에서 실험 실천하고 있다.

목록작성업무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호협동은 美國이외에도 캐나다, 영국, 쓰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브라질 등지와 가까운 일본과 자유중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과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국제수준—Shared Cataloging

목록작성을 위한 상호협동이 국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국가와 국가, 한지역의 여러 나라들, 혹은 전세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에서든지 협동식과 중앙집중식목록작성을 병행 혹은 독립시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美國의회도서관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Shared Cataloging (분담 목록작성)은 상호협동의 새로운 양상으로 목록카야드의 내용이 한근원(한도관)에서 전부 조달되는 대신 상호협동을 계약한 나라들 사이에서 분담하여 조달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목록작성만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아니다. NPAC(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라는 보다 큰 조직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목록작성부문은 이 큰 계획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뿐아니라 도서관 역사상 일찌기 그 예가 없었던 대규모의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를 통하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NPAC를 一名 Shared Cataloging Program으로 번갈아 쓰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理由에서 일 것이다.

NPAC는 1965年 11月 美國의회에서 통과된 Higher Education Act(고등 혹은 대학교육안)의 연장인 Title II C라는 조항으로 통과된 法에 의한 조

7) Herman Liebaers, "Shared Cataloging"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XXIV, No. 2 (1970) p. 64.

(NPAC이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아래의 자료를 부가하여 참조할 것)

L.Q. Mumford, "International break through: an account of the operational beginnings of the shared cataloging program." *Library Journal*, Vol. XCII(Jan. 1967) pp.78-83.

John Cronin, "Remarks on L.C. plans for implementation of new centralized acquisition and Cataloging program under Title IIC, Higher Education Ac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XI, No. 1 (1967) pp. 35~46.

적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연방정부는 의회도서관으로 하여금 현재 세계에서 출판되는 자료중 학문연구에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구입과 구입된 자료의 목록작성과 서지적정보의 분배에 관한 임무를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의의는 가치있는 출판물의 구입과 더불어 그들 자료의 목록작성에 있어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있다. 특히 도서관의 목록업무 간소화에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게 되므로 서지적 정보조달이 국가적 사업화하는 도서관 역사상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방대한 계획의 창설이후 5년이 조금넘는 짧은 기간이 있으므로 그 업적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 설치된 구입센터(acquisition centers)와 목록작성사무실(Shared Cataloging offices)을 통하여 행해진 국가간의 상호협동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좀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전세계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국제적 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가치는 큰 것이다.

NPAC는 美國과 같은 풍요한 사회라할지라도 쉽사리 구현되기 어려운 방대한 계획이다. 또 국가의 풍부한 재정적 부담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고립된 단순한 현상도 아니다. 이런 사업이 실현되어 질 수 있는 배경을 이룬 중요한 요소는 오랜 세월동안 행해진 중앙집중식 목록작성의 경험과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도서관기술업무 간소화와 능률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었다. 수서와 목록작성을 위한 국가적계획案은 1964~65년에 연구도서관의 자료구입과 기술업무에 오랜 관심을 가져온 ARL에서 창안되었다. 1965년 3월 ARL은 의회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원인을 상정하여 NPAC와 같은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첫째는 ARL소속의 74개 도서관에서 매년 목록작성을 위해 1천8백만불을 쓰고 있는데 이 액수는 美國 전체가 쓰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둘째로 의회도서관의 인쇄카아드는 전체목록업무의 반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반은 각도서관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상당한 중복된 업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며, 셋째로 言語와 主題에 능통한 목록司書의 절대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하였다.⁸⁾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더욱 효율적인 중앙집중식목록

8) Liebaers, *op. cit.* 와 Cronin, *op. cit.* pp. 36-37.

작성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이미 오랫동안 국가적서지센터로 목록작성의 완전한 기구를 갖추고⁹⁾ 있는 의회도서관이라고 단정하였다.

194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國대학의 연구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서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태에 관한 대응책으로 Farmington Plan (1949)과 PL-480 Program (1962)과 같은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완전한 범국가적인 기구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1901年이래로 계속 증가되어온 인쇄카아드판매는 이런 연구도서관의 수서를 따르지 못하므로 大學 안에서 이루어지는 研究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조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여건들은 ARL대표들이 의회에서 증언할 때 인용했던 미국 대학이 당면한 “critical situation” (위기)로 인정되어 국가가 그 타개조치의 책임을 지게 이르렀다.

NPAC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도서관은 ARL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자료구입의 대상을 일차적 단계에서는 단행본에 한정했다. 의회도서관은 외국의 국가서지 출판사나 국립도서관과 긴밀한 연락을 지속하여 국가서지가 출판되기前에 견본판을 입수하여 美國内の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료선정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정된 외국서적에 대량주문(blanket order)을 내는 방법과 책임있는 국립도서관에게 冊구입을 위탁하는 방법과, 국외에 지역사무실(regional office)을 개설하여 자료구입과 분담식목록작성을 맡아보게 하였다. 1970年 상반기 현재 의회도서관은 NPAC발전을 위해서 22개국의 국가서지와 계약을 통한 협조를 받고 있으며 9개 국안에 Shared Cataloging offices를 설치했고, 3개의 지역수서사무실(regional acquisition offices)을 운영하며¹⁰⁾ 이밖에도 사무실 시설은 없으나 대리사무나 서신 등을 통하여 협동의 망을 전세계에 펴고있다.

Shared Cataloging이란 用語의 근원은 구입된 외국자료를 목록하는데 있어 자료를 생산한 나라의 국가서지로 부터 목록정보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와 의회도서관의 목록작성에 사용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자료를 생산한 나라

9) Cronin, *op. cit.*, pp. 38-40.

10) Liebaers, *op. cit.*, pp. 64-65.

와 구입한 나라가 한자료의 목록작성을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는 뜻에 있다. 분담식목록작성을 위해서 채택되고 있는 방법은 상대국의 특유한 서지적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말한 의회도서관이 입수하는 외국의 국가서지의 견본관은 자료선정 뿐 아니라 선정된 자료의 기술목록(descriptive cataloging)을 그대로 복사하여 인쇄카아드에 옮기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선정된 자료의 서명, 출판사항, 대조사항 등은 외국국가서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기입(main entry)과 부출기입(added entry)의 결정과 표기에 관한한 현재 의회도서관이 사용하는 ALA 목록규칙(1949)과 Anglo-American 목록규칙(1967)에 준하며 주제명표기는 의회도서관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분담목록작성은 1966年1月 London에서 의회도서관 대표들이 BNB(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의 임원들과 첫회담을 가지므로서 시작되었다.¹¹⁾ 이會議에는 여기에 관심있는 독일 불란서 노르웨이의 국가서지출판에 책임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 회의 결과로 London에 Shared Cataloging office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 BNB의 견본관을 출판보다 2~3주일前에 입수하여 이것을 Washington에 있는 의회도서관으로 전문을 통하여 송신한다. 의회도서관은 입수된 정보를 90여개의 회원도서관에 속달하여 주문을 받아 다시 London에 있는 사무실로 보낸다. 선정된 자료는 가능한한 신속히 구입되며 양국이 합의한 Shared Cataloging 조건(표목을 제외한 기술목록 사항은 BNB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의하여 목록작성이 완료되어져 매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주문된 자료와 완료된 목록카아드가 의회도서관으로 운송된다. 영국과의 분담목록은 큰 성과를 견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상호협동의 표본으로 인용되고 있다. NPAC를 더욱 넓은 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의회도서관은 더욱 많은 자료의 목록작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1965년에는 35%내지 50%내외의 대학도서관의 목록업무량밖에 충당치 못하던 것을 1969년에 와서는 70~80%로 끌어 올려 놀라운 설적을 냈다.¹²⁾

11) Cronin, *op. cit.*, pp. 42-43. Mumford, *op. cit.*,

12) Liebaers, *op. cit.*, pp. 70-72.

또 최근에 발표된 분석적평가에 의하면 중앙집중목록의 효과가 1962의 45%로부터 1967의 90%로 급증하였다.¹³⁾ NPAC로 인하여 얻어진 전보다 더욱 강화된, 완전한 중앙집중 목록작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미 1948년에 창안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Ralph Ellsworth의 완전한 중앙집중 목록작성에 관한 제안이 충분한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새삼 인정하게 된다.

英國을 선두로 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상호협동을 통해서 NPAC는 美國의 일방적 목적달성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출판물의 記述에 있어 국가들 사이에 더욱 일치된 방식을 채택하게된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목록작성의 국제표준화에 공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서지의 절본판을 배부하므로 주문과 목록작성을 신속히 하여 자료판매를 증가시키고 목록작성의 비용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 학자, 그리고 출판업자에게 다같이 혜택을 주고 있다.

NPAC의 여러 가지 부수적 利點을 감수하는 것은 美國의 상대국이 되는 각국의 圖書館과 司書의 物的 知的能力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이 NPAC로 부터 얻는 혜택의 정도와 종류는 대등할 수가 없다. IF 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는 NPAC의 효과를 보다 넓은 지역에 보급하고자 1966년이래로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이에 관한 토의와 연구를 거듭해왔다. Frankfurt에서 열린 1968年度 IFLA 모임에서는 UNESCO와 IFLA의 공동계약을 통해서 분담 목록작성의 효과를 개발도상국가에 연장시켜보려는 제안이 토의되었다.¹⁴⁾ 즉,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서 얻어진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출판의 조직이 미숙한 상태이며 국가 서지가 결핍되고 있는 지역에 분담 목록작성을 통하여 출판물의 서지적 통제와 목록정보의 조달을 꾀하려는 것이다. NPAC는 국제적 상호협동을 초래하는 자료구입의 도구이자 목록작성의 도구로서 그 효과를 이미 입증한 바 있으며 書誌情報(bibliographical information)의 국제교환을 위한 조직체로서의

13) B. Schrader and E. Orsini "British, French, and Australian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Union Catalog: a study of NPAC's effectivenes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XV, No. 3 (1971), p. 349.

14) Herman Liebaers, "Shared Cataloging"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XXIV, No. 3 (1970) p. 134.

발전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ILFA와 같은 국제전문기구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통하여 목록작성의 국제적 표준화와 협동의 전망은 다소 밝아지고 있다.

<附加參考文獻>

- “Cataloging-in-source, a symposium”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IV. No. 4 (1960), pp. 269—284.
- Cronin, John et al. “Centralized Cataloging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bid.*, Vol. XI, No. 1 (1967), pp. 27—50.
- Mumford, L.Q.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hared cataloging”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XXII, No. 1 (1968), pp. 9—12.
- Wheeler, J. “Top priorities for Cataloging-in-source” *Library Journal*, Vol. XCIV (Sept. 15, 1969), pp. 3007—13.

Library Cooperation in Cataloging

Ja Young Koo*

<ABSTRACT>

The paper is aiming at a critical review of some important aspects of library cooperation in cataloging. It examines the developments of cooperation in cataloging in brief, attempts a detailed account of centralized and cooperative cataloging by bringing 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and reviews important cooperative projects in cataloging as they have been carried out on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xamination is made of such cooperative ventures as technical service centers, a variety of Library of Congress programs designed to ease the burden of cataloging for libraries, and the shared cataloging part of the 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

* Library Science Dept., Ewha Womans University.